



한국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심층인터뷰 연구

따돌림의 유형화 및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jee.lee@canberra.edu.au

권예지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yejikwon@sogang.ac.kr

고예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kfree08@snu.ac.kr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unmee@snu.ac.kr

나은영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na@sogang.ac.kr, 교신저자

박소라

호주 캔버라대학교 뉴미디어연구소 교수 sora.park@canberra.edu.au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집단 따돌림 현상을 청소년들의 관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청소년들의 사회관계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 거주 중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따돌림현상을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무리)의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2-S1A5A2A-03033936)

맥락에서 ‘외톨이형 따돌림’과 ‘관계형 따돌림’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은 ‘반’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의 무리를 지어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무리가 형성되는 학급 초기에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못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제되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 다양한 친구 무리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과정에서도 따돌림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후자에 해당하는 관계형 따돌림은 외톨이형 따돌림과 구별되는 몇몇 특징들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따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인 구조적 특성에 따라 따돌림의 유형화를 시도한 뒤, 따돌림 유형에 따른 특징과 발생원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현상을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황만을 보고 모두 ‘집단 따돌림’으로 명명하여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선행되기 위해 먼저 따돌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의 정밀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안한다.

KEYWORDS 집단 따돌림 • 청소년 • SNS • 또래관계 • 사이버불링

1. 문제제기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은 학교폭력 문제의 핵심 사안이자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14)에 따르면, 언어폭력(34.6%)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유형이 따돌림(17.1%)이며, 이는 2년 전 동일 실태조사 대비 한 단계 증가한 순위이다.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 건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따돌림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카톡감옥’, ‘떼까’, ‘카톡방폭’ 등과 같은 용어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종 따돌림 수법들의 등장은 집단 따돌림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집단 따돌림은 성별과 학년을 막론하고 학교라는 공간에 늘 존재해 오던 문제다. 학교 안에는 교실이라는 공간적 맥락, 그 공간 내 집단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루는 몇몇 친구 무리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특징적으로 겪는 사회문화적 배경 중 하나는 바로 같은 교실을 공유하는 ‘반’ 문화이다. 교실이라는 구조는 여타 학습 및 여가활동 등 청소년 생활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또래집단의 형성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을 가해와 피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교실이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의 지형 안에서 이 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청소년들의 생활공간과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단 따돌림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따돌림의 양상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신종 수법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의 이용 확산과 더불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자 10명 중 8명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블로거나 페이스북 등의 여타 소셜미디어보다 카카오톡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창호 외, 2012).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인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SNS)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MIM)의 유행은 어느 계층보다도 청소년 집단에서 빨리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세대들이다.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교실, 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과 더불어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상의 상당부분을 함께 보내는 또 하나의 공간인 셈이다. 이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집이나 학원, 심지어 길거리에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래들과 연결되어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학교 밖의 공간은 물리적 차원에서 집, 학원, 길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공간으로 통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

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대인관계 및 그룹 활동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일 수 있다. 더욱이 항시 접속이 가능하기에 온라인상의 집단 따돌림은 언제 어디서든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또래관계에 대한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며, 직장생활 및 취미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관계망을 가지거나 개발할 수 있는 성인에 비해서 많은 경우 교우관계가 거의 유일한 관계망이라는 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 집단 따돌림 연구는 실태 파악 및 선행 요인과 그 후속 사건을 규명하는 데, 개인적 수준의 요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목해 왔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 문제는 개인적 수준에 대한 이해에 앞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집단 따돌림은 학교 혹은 교실이라는 공간적 맥락과 관련이 있으며, 이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따돌림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관계 및 또래 무리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집단 따돌림의 사례는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망 내에서 미디어를 매개로 발생하는 따돌림 행태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또래 관계의 상황적 맥락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의 상황 속에서 집단 따돌림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발생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적 요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적 맥락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불링

(1) 집단 따돌림 개념 및 요인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미 1890년대부터 학자들은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Berg & Breheny, 2014), 집단 따돌림의 요인 및 그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주로 집단 따돌림, 또래 따돌림, 집단 괴롭힘 혹은 왕따라는 용어로 불리는 집단 따돌림 행위들은 특정인에게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행동(Olweus, 2011), 힘의 불균형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격적인 행동(Smith & Brain, 2000)이라 정의된다. 모두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행동, 반복 및 지속성, 힘의 불균형과 같은 특징들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본용(1997)이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 집단에서 특정인에게 활동의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언어적이거나 신체적 행위라 정의하고 있으며, 김해숙(2000)은 다수가 소수의 집단 구성원이나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소외를 시키는 현상들이라 정의한다. 이들 정의는 가해자의 특징을 두 명 이상의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의 선행 요인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 및 학교 환경 요인들을 중심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반적으로 가해학생은 동조와 공격 성향이 높고 공감 능력이 낮은 개인적 특성을 보이는 한편, 피해학생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선망과 시기의 대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김선애, 2004, 92쪽). 불우한 가정환경일수록 가해와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학교라는 공간도 따돌림 현상에 영향을 준다. 경쟁적이거나 폭력에 좀 더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학교에서 따돌림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 활동과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 또한 가해자가 되기 쉽다.

손버그(Thornberg, 2010)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따돌

림의 요인을 특이성, 사회적 위치 짓기, 부정적 감정 표출, 응징, 재미, 또래 압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버그(Thornberg, 2010)는 이 따돌림이 여러 '집단'들이 속해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집단이라는 구조는 따돌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외양적, 행동적, 성격적 '다름'에서 기인한 따돌림의 경우, 또래 친구들에 의해 이상한 아이로 정의되면서 그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응징의 수단으로서의 따돌림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공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처벌, 복수 형태로 가해지기도 한다. 손버그는 또래 압력 또한 따돌림 현상의 하나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집단적 따돌림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따돌림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돌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은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규명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돌림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직접적, 간접적 행위로 구분이 된다. 직접적인 행위는 외현적 행동(overt behaviors)으로 나타나는 모든 방법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신체적인 공격(Wang, Iannotti, Luk, & Nansel, 2010)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공격(Eliot, Cornell, Gregory, & Fan, 2010)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 간접적인 행위는 심리적, 관계적 따돌림으로 명명되며, 그 예에는 루머 퍼뜨리기, 성적 제스처, 악담 등이 해당된다(Corvo & deLara, 2010). 그런데 간접적 형태의 따돌림은 직접적 행위 대비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 및 교사의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구(Koo, 2007)는 집단 따돌림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으로 그 개념적 정의를 확장하고, 비가시적(non-physical) 현상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간접적인 따돌림 행위는 한국적 맥락에서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준모(1999)는 서구사회의 불링(bullying), 일본의 이지메와 구별되는 한국의 집단 따돌림 방법의 특징 중의 하나로 관계적 소외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집단 따돌림은 "정기적으로 대면하

는 집단의 학생들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소속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일련의 과정들”(김원중 재인용, 2004, p. 4)이라는 것이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이 밝힌 한국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방법 중,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기’,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기’, ‘등곳길이나 하곳길에 자기들끼리만 가기’, ‘쉬는 시간에 같이 놀지 않기’,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지 않기’ 등이 특히 소속 집단 내- 일단 소속감이 있고 지속적으로 소속할 수밖에 없는 집단- 소외 현상으로 주로 묘사되고 있다. 즉, 소속될 수밖에 없는 집단 내에서 비가시적 소외인 간접적 따돌림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는 점이 한국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형태의 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인해 관계적 소외 형태의 간접적 따돌림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으로 명명되는 이 현상을 두고 스미스 외(Smith et al, 2008, p. 376)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채팅방, 웹사이트, 디지털 메시지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룹이나 개인에 의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인 행위”라 정의한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형태의 따돌림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슬론제와 스미스(Slonje & Smith, 2008)는 이를 지속성, 잠재된 청중의 범위, 익명성으로 구분한다. 전통적 형태의 따돌림은 따돌림이 발생하는 특정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며, 그 물리적 공간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집에 오면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물리적 공간의 경계와 상관없이 온라인이라는 매개 환경을 통해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사이버불링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느 곳도 없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청중의 범위가 다르다. 전통적 형태의 따돌림은 그 현장에 있는 소규모 집단에게만 가해 현상이 노출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이버불링이 노출된다. 온라인의 네트워크 특성상 그 온라인 관계망에 있는 누구든지, 예를 들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 혹은 친구의 친구들에게도 따돌림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 즉, 따돌림의 목격자 혹은 방관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익명성이 보장되어 따돌림으로 야기되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인태(2012, 95쪽)는 “낮은 사회적 실재감”과 “탈육체화된 자아”가 강하게 반영되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이 집단 따돌림의 발생 빈도와 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온라인 활동에서도 사이버불링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스토리는 폐쇄형 SNS의 형태로 익명성보다는 실명에 기반을 두며, 이미 존재하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대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명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SNS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의 경우, 미디어를 넘나들며 이뤄지는 포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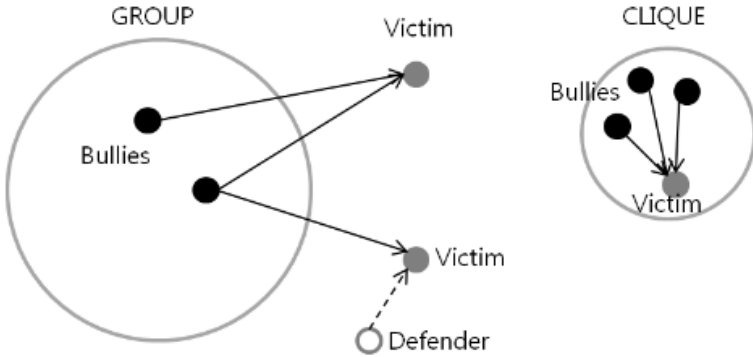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주로 전통적 형태의 집단 따돌림과 별개의 형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 상에 발생하는 전통적 형태의 따돌림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사이버불링을 전통적 형태의 집단 따돌림의 하위개념 혹은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Hay, Meldrum & Mann, 2010; Vandebosch & Van Cleemput, 2008; Wade & Beran, 2011). 사이버불링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오프라인 상에서 먼저 발생한 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는 점(Raskauskas & Stoltz, 2007)과, 상당수의 피해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 모두 피해 경험 이 있다는 연구 결과(Erdur-Baker, 2010; Gradinger, Strohmeier, & Spiel, 2009)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결국 미디어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따돌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여 그 현상을 보기보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이라는 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미 유년 시절부터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 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

을 수 있으며, 이 두 공간을 넘나드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 과정이라는 그 상황적 맥락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이용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집단 따돌림 현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집단 따돌림에 이용되는 수단과 방법도 달라지는지, 만약 다르다면 왜 다른지, 어떠한 상황이 그러한 특징적 방법의 가해를 유발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집단 따돌림: 관계적 맥락에 대한 이해

최근 들어 몇몇 연구들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청소년들의 환경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데이비스 외(Davis, Randall, Amrose & Orand, 2015)는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는 체계(system)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 발달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을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일련의 내포된 “사회문화적 체계(nested socio-cultural systems)” 속에서 성장하는 한 사회의 청소년들은 가족, 사회 등과 관련된 주변 환경의 다양한 체계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가정, 이웃, 학교 등과 같은 가장 근접한 환경(“미시체계”)에서 성장하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연결된 형태, 즉 다양한 대인관계(“중간체계”)를 경험하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외체계”) – 부모의 직장, 정부기관, 미디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avis et al., 2015, p.359). 데이비스 외는 이 중 청소년들의 가장 근접한 환경, 즉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또래 관계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이론적 관점에

그림 1. 학급 내 따돌림: 또래관계와 구성원의 역할



출처: Cotterell, J. (2007). Social networks in youth and adolescence, New York, NY: Routledge. 102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서 학교라는 공간은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 작은 사회와 같은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행동, 예를 들어 집단 따돌림 행위 같은 현상은 바로 이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적 요인이 발생하는 공간의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따돌림이 발생 가능한 구조에 대한 단서를 코터렐(Cotterell, 2007)의 도식-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구성원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터렐(Cotterell, 2007)은 그룹이라는 맥락 안에서 또래 관계 내 따돌림 현상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살미발리 외(Salmivalli, Huttunen, & Lagerspetz, 1997)가 그룹과 무리(clique)를 나눠 따돌림 현상을 규명한 연구를 바탕으로, 코터렐은 따돌림이 발생하는 구조적 상황을 도식화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집단 따돌림의 대상은 어떠한 그룹이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외톨이(loner)가 될 수도 있고, 무리 내 한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코터렐은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집단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 맥락에서 따돌림이 발생 가능한 범위

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코터렐(Cotterell, 2007)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은 그룹 내 구성원과 그룹 밖의 비구성원(outsider)을 구분지음으로써 그룹 정체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소속감과 안정을 위해 다른 비구성원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행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가시적이며, 배제 및 소외의 형태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형태의 따돌림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버그와 브레헤니(Berg & Breheny, 2014)가 명명한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사회적 소외 및 배제 행위로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의 형태이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의 패턴은 소속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고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맥락적 특징으로 인해 그 실태 및 현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버그와 브레헤니는 집단 따돌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dynamics)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청소년들 자신들의 소속 그룹 및 집단에 따라 집단 따돌림의 가해와 피해의 대상이 변화 가능하다는 점은 이러한 관계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일례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이러한 관계형 배척, 소외 형태의 따돌림이 스마트폰의 관계형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영화에서 묘사된 한 따돌림 장면—한 공간에 모두 모여 있는 무리 내 아이들이 바로 그 공간에서 한 친구만을 제외하고 함께 채팅을 하는—은 실제 이러한 관계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내 관계적 소외 및 배제 현상이 이러한 도구를 통해 더욱 잠행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 따돌림의 등장은, 한편으로 기존의 집단 따돌림 정의 및 방법으로는 규명해 내지 못한 따돌림 현상들이 상당 부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따돌림 현상이 어떠한 상황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를 형성/유지해 가는 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는 없다. 이는 기존의 집단 따돌림의 선행 요인 및 후속 사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더불어,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돌림이란 상호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따돌림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따돌림이 발생하는 집단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관계란 어떠한 집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돌림이 발생 가능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서콥브와 도넬리(Sercombe & Donnelly, 2013)는 집단 따돌림의 현상에 대한 규명이 상당히 일차원적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집단 따돌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며 따돌림 특징을 살피고,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집단 따돌림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1) 개별 심층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다른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서 현상에 대한 좀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다. 즉, 심층 인터뷰는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로부터 깊고

상세한, 때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DiCicco-Bloom & Crabtree, 2006). 반면에 심층 인터뷰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인터뷰에 연구자의 편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Boyce & Neale, 200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질적 연구에서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채택한다(DiCicco-Bloom & Crabtree, 2006).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은 구조화된 면접이 가지지 못하는 유연성을 가지면서(Barriball & While, 1994), 동시에 연구자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Cohen & Crabtree, 200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따돌림 실태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채택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이 수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들의 따돌림 실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또한 따돌림 경험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얻은 데이터는 서로 간 비교가 가능하므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미디어를 이용한 집단 따돌림의 유형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통보를 받은 뒤, 2014년 5월 말부터 6월까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대리인과 본인에게 참가 동의서를 받고 동의하에 녹취를 시작하였다.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인터뷰 참가자당 1시간 정도 미디어 사용, 온/오프라인 친구 관계, 따돌림 등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청소년들의 따돌림 경험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고 인터뷰 대상자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등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학교생활, 친구 관계,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에 관한 질문들로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원들은 집단 따돌림의 사례를 한 단락의 이야기로 만들어 소개하였다. 여기까지 집단 따돌림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유사한 사례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

런 일들이 학교나 주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해당 이야기 내의 ‘지수(혹은 민호)’에게 한 친구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원은 이러한 행동을 따돌림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돌림이라는 용어 외 또래 사이에서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방과 후, 혹은 주말에 인터뷰 참가자의 집이나 학교 근처 공공장소(카페 및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예시〉

지수(혹은 민호)는 13세(혹은 14, 15세)이고, 학교에 어울려 지내는 친구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 모르게 지수(민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괴롭힘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이어졌지만 지수(민호)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길 몇 주, 그 친구들은 지수(민호)가 집에 있을 때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지수(민호)는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지수(민호)는 가까운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2) 참가자

총 14명의 중학생이 개별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기존의 상당수 연구들이 집단 따돌림, 특히 사이버불링의 경우, 중학생 사이에서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한다는 점(남상인·권남희, 2013; 최미경, 2013; Williams & Guerra, 2007; 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에서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를 표집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서울시는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여(김은영, 2008, 160

쪽) 강남-강북 지역으로 나누고 각 소재 학교 선생님에게 동의를 구하여 참가 학생들을 섭외하였다.

본 연구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차원의 개인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집단 따돌림의 상황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정의에 따라 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대상자 선정에 이용하기보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 따돌림 현상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경험 및 의견을 취합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가자 구성(부록 참조)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 비율이 동일하며, 중학교 2학년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가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1명의 경우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다. 참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다양했으나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래들과 채팅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1) 한국 청소년의 따돌림 특징: 관계형 따돌림과 외톨이형 따돌림

심층 인터뷰 결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현상을 따돌림이 발생하는 집단 구조 내 따돌림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따돌림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 학교나 학급 내 외톨이형 따돌림 유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왕따는 친구 한 명도 없고 한 명 혼자 쓸쓸히 있는 것 같고 짤따는 개네 들끼리만…… 왕따는 혼자 놓고 짤따는 우리가 재네들을 이상하게 보

는 것 같아요.”(A, 여, 15세, 경기도)

학급 학생들은 대개 3~5개의 무리(clique)로 나뉘어 무리 내 친구들과 친밀하게 다녔다. 무리는 같은 초등학교 출신, 권력을 가진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학생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학생들과 특정 취미에 몰입되어 있는 친구들 등 학교 문화나 학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소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 주로 따돌림 대상자였다(B, 여, 15세, 경기도; D, 여, 16세, 경기도; F, 여, 14세, 경기도; M, 남, 15세, 서울-강북 등). 이들은 반 학생들과 친구를 맺지 못한 채 소외되었다. 소외당하는 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외당하는 아이가 말을 안 해서’라고 보기도 하고, ‘그 친구를 소외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 방관자의 가해 가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달랐다.

“반마다 무리가 있고, 2, 3명 남는데, 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을 무시하고, 반 애들이 이런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을 거는 편이었는데 점점 말을 안 거는 것 같아요.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D, 여, 16세, 경기도)

“거기(그룹 안)에도 못 들어가는 친구가 있기는 해요. 한두 명. 소외 받는 친구도 있고 욕상 하는 애들(체육 전공자)도 있고. 그냥 말을 안 걸어요.”(M, 남, 15세, 서울-강북)

이러한 외톨이형 따돌림과는 다르게, 친한 친구 무리 내에서 비밀 비재하게 일어나는 갈등과 그로 인한 기존 친구 무리에서 다른 친구 무리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할 때 따돌림은 징벌 도구의 형태로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 또래 무리 내에서 갈등이나 오해 등으로 빚어진 결과, 따돌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따돌림 현상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톨이형 따돌림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A B그룹 있다고 하면 A에서 B로 옮기거나 할 때 A(그룹) 애들이 B(그룹)로 옮긴 애를 엄청 구박을 하고 그래요.”(M, 남, 15세, 경기도)

“원래 친했던 친구가 다른 학생이랑 멀어지면서 다른 애들한테도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애들한테 개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죠.”(L, 여, 15세, 경기도)

이때 갈등이 해소되면 따돌림 당한 구성원은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갈등이 작은 무리 내에서 발생해 학급 혹은 학교 전체로 퍼지는 경우와 무리 내에서 그치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집단 따돌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어울려 다니는 무리가 재조직된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의 생성과 해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같이 다니는 무리는 반 배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 학년 바뀐다고 응답한 참가자(N, 여, 15세, 경기도)도 있었다. 청소년의 무리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으며, 갈등의 발생에 따라 유연하게 생성-해체-재조직되는 양상을 보였다.

“자주 움직여요…… 예를 들면 놀던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다 잡혀 갔기 때문에 가군이 놀던 급이 붕괴돼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흥미 그런 거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J, 남, 16세, 서울-강남)

“애들끼리 문제가 많아서 처음에 놀던 무리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N, 여, 15세, 경기도)

“원래 그 친구는 우리와 맨날 싸우던 그룹의 한 명이었는데, 그 애들이랑 싸우고 나서 혼자 왕따 당하니깐 우리한테 와서 친해졌어요.”(C, 여,

본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외톨이형 따돌림과 관계형 따돌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고자 한다. 따돌림이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계란 원초적으로 상호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따돌림의 대상이 '누구인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외톨이형 따돌림'은 학급 내 어떠한 무리에도 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학급 내 다른 교우들에게 배제되는 현상이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나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 온 '왕따'의 개념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이다. 반면, '관계형 따돌림'은 학급 내 3~5명으로 구성된 또래 무리 내에서 대인관계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하나의 갈등의 산물이었다. 이 경우에는 무리 내 어울리는 구성원(들) 중 누구나 무리 내 다른 구성원에 의한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높은 상호성이 존재하는 관계 내 발생하는 따돌림으로서 무리 내 구성원은 누구나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외톨이형 따돌림과 구별되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쓰는 따돌림 은어('왕따'와 '찐따')는 이 둘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미 코터렐(Cotterell, 2007)의 도식에서 우리는 따돌림이 발생 가능한 구조를 확인한 바 있다. 따돌림은 좀 더 큰 그룹의 한 구조 내(예를 들어, 학급 내) 절대적 다수의 구성원이 한 두 명의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며, 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 내에서 소수의 몇 명이 한명의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형태로 일어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따돌림이 발생하는 이유와 행해지는 방법에서 이 두 유형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따돌림에 대한 사회관계학적 관점에서 좀 더 확장된 접근이 필요함과 동시에 집단 따돌림에 대한 정밀성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2) 따돌림 이유

(1) 관계형 따돌림

이미 언급했듯이 관계 내 따돌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집단 내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또래 갈등이다. 갈등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관계는 결코 ‘좋은’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며 부침을 겪으면서 견고해지거나 약화된다. 관계의 부침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이 상대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거나 상대에 나름대로의 징벌을 가하기 위해 따돌림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친했던 친구가 그 학생이랑 멀어지면서 다른 애들한테도 소문을 퍼뜨리고, 걔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그러니까…… 친구 네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명한테 가서 나머지 두 명을 이간질시키니까 저 희도 화나서 이 한 명을…… 좀 혼내야겠다고 생각했죠.”(C, 여, 15세, 경기도)

관계형 따돌림 발생의 또 다른 이유는 남들에게 비취질 자신들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김은정, 2007) 무리 내 또래 친구가 하는 행동이 ‘용인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자기들의 이미지를 절하시키는 친구를 멀리하여 이미지 관리에 힘쓴다는 응답은 이를 뒷받침한다. 근거 없는 험담, 걸뭇부리며 관심 끄는 글을 SNS에 올리기 등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서 SNS는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애들이 욕할 만한 짓을 해 가지고 애들이 애(친구)를 욕하면 나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떨구는 것도 있어요 ……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뒷담화

를 까던가 카스(카카오스토리) 같은 데서 관중(관심종자)처럼 관심 끄는 짓을 했을 때 그 친구 욕을 해요.”(K, 여, 15세, 서울-강남)

(2) 외톨이형 따돌림

인터뷰 결과, 외톨이형 따돌림이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외형적 다름’, ‘행동적 다름’, ‘사회성’, ‘환경적 제약’, ‘응징’,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외형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 이들이 외톨이형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 여기에는 못생기거나 뚱뚱하다 등 외모에서 비롯된 것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거예요.”(E, 여, 15세, 경기도)

“좀 걷는 것도 이상하고…… 개가 뭘 잘못하면 애들이 다 같이 욕하고 그랬어요.”(G, 남, 16세, 서울-강북)

“하는 행동이 다른 애들보다 특이하다든가…… 왜 장애인들 보면 특이하잖아요…….”(S, 남, 16세, 서울-강북)

둘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면 따돌림 대상자가 된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다름을 수용하는 폭이 좁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용하고 말이 없거나 본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며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애들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둘(따돌림 대상자들)이 마주보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에서 국어말하기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둘이 발표하는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러는지…….”(A, 여, 15세, 경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깐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애들 더 모아

가지고 왕따를 만들어버려요.”(C, 여, 15세, 경기도)

“하는 행동이 다른 애들보다 특이하다든가…….”(I, 남, 16세, 서울-강북)

“그냥 말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근처에도 안 갔어요.”(G, 남, 16세, 서울-강북)

셋째, 다른 이들이 인식하는 피해자의 사회성은 외톨이형 따돌림 발생과 관련이 있다. 친구 관계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에 서툰 경우, 한 분야에 열정적인 성향이 강해 자기만의 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 눈치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예민하거나 성격이 특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한 분야에 심취한 이들을 ‘오타쿠, 덕후, 슈퍼덕후’ 등으로 이름을 붙이며 조롱하는 어감으로 이 유형의 아이들을 묘사하였다.

“만화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 다른 친구들은 그런 얘기 싫어하는데 모둠 활동 때에도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서…….”(B, 여, 15세, 경기도)

“거기서 조용한 애들은 괜찮은데 약간 나대는 애는 애들이 더 싫어해요. 너무 나대서. 애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N, 여, 15세, 경기도)

“(학기 초에) 친해지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하는데 괴롭힘 당하는 애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성격이 특이해서…….”(M, 남, 15세, 서울-강북)

“일베, 일간 베스트라고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한데, 고인 욱하고, 보통 그런 애들, 일베충 일베충 그러는데…… 그런 애들도 포함이 되요.”(S, 남, 16세, 서울-강북)

주목할 만한 점은 ‘나대는(설치는) 아이’ 중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모습이 다른 학생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주로 오프라인에서는 조용한데 반해 온라인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래 친구들을 청소년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질적인 모습은 곧 또래 친구들 가운데에서 소위 ‘눈 밖에 나는 아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그대로 온라인으로 이어짐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이미지를 평가 받는 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넷째, 환경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지역 내 동일 초등학교에서 동일 중학교로 함께 진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예로 이는 동일학군 내 진학 구조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초등학교 때, 왕따라는 낙인이 찍혀 중학교 생활에서까지 왕따의 굴레 속에서 지내는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환경적 맥락은 한국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바로 중학교로 같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몇몇 전학생 빼고는 다 서로 아니까 전체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이 화장실에서 괴롭혔던 애고, 별로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은근히 도태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C, 여, 15세, 경기도)

“왕따 당하는 그 애가 듣기론 초등학교에 전따였다고…….”(F, 여, 14세, 경기도)

그밖에 외부적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발현되어 따돌림의 가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몇몇 참여자의 의견도 있었다.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쪽에 다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C, 여, 15세, 경기도)

“요즘 친구들 성격도 많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L, 여, 15세, 경기도)

마지막으로 친구 무리 속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문제의 중심에 있는 친구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상황도 발견되었다. 즉, 이 친구들은 외톨이형 따돌림 대상으로 전략해 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는 갈등이 발생한 후, 적절하게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로, 앞의 4가지 이유와 결합이 되면서 발생한다.

“많이 친한 경우면 며칠 안에 풀어지기는 하지만 원래 살짝 왕따 같은 게 보이면 바로 왕따로 전략할 수도 있어요.”(C, 여, 15세, 경기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관계형 따돌림은 또래와의 부침이라는 상황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반면, 외톨이형 따돌림의 경우, 기존에 이미 밝혀진 몇몇 특징적인 요인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특정 학생을 배제시키는 따돌림의 발생 원인에는 신체적 및 성격적 다름 등 몇 가지 동일하게 지적된 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따돌림이 특정 상황과 구조적 성격에 영향을 받는 여러 형태의 따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따돌림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집단 따돌림의 요인을 피해자와 가해자 각 개인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넓은 맥락에서 집단 따돌림 현상에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슈스터(Schuster, 1999) 역시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징보다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룹이나 무리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특정 학생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구분 짓고자 하는 행위가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성식과 전신현(2000) 또한 집단 따돌림 현상의 집단 역학이라는 상황적 요인에 주목하면서 학급 내

급우들 내에서 작용하는 “동조의 압력”과 “응징(배척)”으로서의 상황적 요인이 집단 따돌림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타인을 괴롭히는 동안 자신은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의 자기보호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Olweus, 1994; Kreidler, 1996). 이러한 맥락에서 따돌림 행위 역시 일종의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이 있는 것이다. 이는 왜 특정 학생이 왕따를 당했는가에 대해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피하였다’라는 인터뷰 응답자들의 언급은 관계 구조 내에서 무리들의 행동을 따르게 되는 맥락적 행위(Festl, Scharkow & Quandt, 2014)가 어떻게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계형 따돌림과 외톨이형 따돌림에 따라 그 상황적 요인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래 무리 내 갈등에 의한 ‘따돌림’이 가지는 징벌 및 이미지 관리의 도구로의 상황적 동기는 분명 좀 더 큰 의미의 집단 내 따돌림과 달라 보인다. 청소년 시기 또래집단은 자타의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또래거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송영혜, 2012), 이에 따른 따돌림 행위의 효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따돌림 방법

따돌림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이 MIM과 SNS 등을 이용한 따돌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이용한 따돌림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따돌림에 이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온라인 미디어,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형 온라인 미디어가 따돌림에 이용되는 방식과 따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과 함께, 사이버불링은 면대면 집단 따돌림과 구분되는 또 다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시 따돌림의 방법 또한 관계형 따돌림이나 외톨이형 따돌림이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

소년들의 일상적 활동의 하나로 깊숙이 자리 잡은 관계형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1) 관계형 따돌림

또래 무리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형 따돌림은 기존에 이미 발생한 갈등적 상황들이 온라인을 통해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MIM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경고하거나 SNS를 통해 저격글을 작성하거나 간접적으로 비꼬는 글을 올리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간접적 경고 방식’은 카카오톡 프로필 옆에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상태 메시지에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다(N, 여, 15세, 경기도).

“카톡 상태 메시지(프로필 사진 옆에 보이는 메시지)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내가 오냐오냐 하니가 계속 그렇게 (만만하게) 보냐”고 상태메시지에 올려요. (상태 메시지를 보고 친구들은) 알더라도 모른 척하죠.”(N, 여, 15세, 경기도)

두 번째는 SNS를 통해 간접적인 공격을 하는 형태로 청소년들은 이를 ‘저격글’이라고 일컫고 있었다. ‘저격글’이란 SNS에 공격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대상이 가책을 느끼도록 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다(B, 여, 15세, 경기도).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그 대상이 자신의 글을 보길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다. 글을 올리는 이와 저격을 당하는 이 말고도 카카오톡스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친구들도 그 상황에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저격글이라고…… A가 일부러 B가 보라고 욕을 써 놓고 B가 보다 보면 글을 볼 것 아니에요.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저격글 올리고…….”(H, 남, 16세, 서울-강북)

“(저격글은) 뭔가 되게 욕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애들 둘이 싸우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욕을 막 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건 뭘데? 이러면서 욕을 써 놓으니 애가 누구랑 싸웠다는 것을 사실 다 알게 되죠.”(H, 남, 16세, 서울-강북)

“애들 사이에 저격글 같은 거는 비밀비재하게 일어나요.”(L, 여, 14세, 서울-강남)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러한 저격글을 게시하고 난 후 적어도 5분 이내에 글을 삭제한다는 것(N, 여, 15세, 경기도)이다. 이는 자신의 상황, 즉 비호감으로 여기고 있는 친구를 다른 친구들이 함께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동시에 더 이상 갈등을 심화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의 해체를 염려함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는 관계형 따돌림이 가지는 뚜렷한 특징이다.

“애들이 그냥 보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애들도 애를 싫어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애들이 얼렁 얼렁 보고 바로 삭제하면 다른 애들은 모르니깐, 애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일부러 올려요.”(N, 여, 15세, 경기도)

나은영 외(2014)에 따르면 청소년이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은 힘든 일이 있는 경우 친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자본’과 아울러 따돌림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자본’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SNS 공간이 자기감정 및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또래 친구들의 공감과 지지가 활발하게 오가는 장임과 동시에 그 공감과 지지 행위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NS에서 특정 대상의 사진이나 글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꼬는 말을 게시함으로써 비호감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다. 관계 내 따돌림은 이처럼 또래 무리 내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리 내 또래에 대한 징벌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었다.

“헐- 완전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서는 애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욕하는. 돌려서 얘기하고 비꼬고.”(B, 여, 15세, 경기도)

“페이스북 댓글에서 장난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은근히 욕하거나 비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지는 않아도 티가 난다고 할까. 비꼰다는 게 보인다거나 저 애들이 저 애를 싫어하는구나 느껴지기도 해요.”(D, 여, 16세, 경기도)

(2) 외톨이형 따돌림

외톨이형 따돌림의 상황에서 MIM과 SNS 등을 이용한 따돌림은 다소 다른 형태로, 주로 특정 대상에게 온라인 언어폭력이 가해지는 형태였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언어폭력이 온라인 채팅방이라는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일대일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공간이 가지는 비가시성으로 인해 대면적인 상황보다 좀 더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 반목을 하다 보면, 반 전체 아이들이 채팅에 초대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낸다든가,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럴 때는 대놓고 얘기해요. ‘꺼지라고, XX새끼들야’ 이런 식으로 하거나.”(B, 여, 15세, 경기도)

다른 하나는 ‘그룹채팅에서 괴롭히기’이다. 이는 여타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보고되었던 방식으로, 그룹채팅에 특정 대상을 초대해서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이었다. 이 공간에서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룹채팅에 초대시켜 가지고 욕하고……. 거기에서는 주도자들과 피해자만 있는 거죠. 제3자는 그냥 초대 안 하니까요.”(C, 여, 15세, 경기도)

“카카오톡에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만들고 개 초대해서 개만 계속 괴롭히던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도 개가 나가잖아요. 그래도 계속 초대가 돼요. 계속 초대가 들어오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I, 남, 16세, 서울-강북)

SNS를 통한 괴롭힘은 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가해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해 가해 대상이 올린 글에 악성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괴롭힌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고(I, 남, 16세, 서울-강북), 카카오톡스토리가 제공하는 ‘필독’이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카카오톡스토리에서 ‘필독’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설정된 상대방의 핸드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푸쉬알림)이 뜬다. 즉, 카카오톡스토리에 따돌림 대상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고, 그 대상을 향해 ‘필독’ 기능을 설정해 그 비방 글을 꼭 읽게끔 하는 방식이다.

“글 작성자가 올리면 필독에 걸린 사람의 핸드폰이 울려요. ‘이 사람 나와 같이 이 글을 함께 합니다’라는 알림이 떠서 보면 나에 대한 욕이 있거나…….”(H, 남, 16세, 서울-강북)

한편, 이러한 MIM과 SNS 외에 ‘Ask.fm’을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다

(B, 여, 15세, 경기도). ‘Ask.fm’은 2010년 라트비아(Latvia)의 테레빈(Terebin) 형제가 런칭한 서비스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셜미디어 사이트이다. 주요 서비스는 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페이지를 개설한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든지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다. 즉 수신자의 실명은 공개되어 있지만, 발신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 특성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을 괴롭히기도 한다.

“(ASK는) 익명이니까 나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면 개가 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 너 왜 사냐?’ 등 되게 심하게 욕을 하기도 해요.”(B, 여, 15세, 경기도)

온라인에서 특정 대상을 비방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거나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개설해 특정 상대를 비방하는 욕설이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카페 같은 것 만들어서. 4학년 때 같은 반 애가.. 거기서 애들 욕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카페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C, 여, 15세, 경기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며 개를 집중적으로 싫어하는 그룹을 만든 거예요.”(J, 남, 16세, 서울-강남)

전반적으로 관계형 따돌림은 비교적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외톨이형 따돌림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성립된 관계 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분노나 증오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이를 표현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정말로 자신으로 인해 해

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형 따돌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방법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이미 기존에 발생한 그 갈등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맥락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그 무리의 구성원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외톨이형 따돌림의 경우 따돌림 대상은 고려 범주인 관계망 내에 있지 않다. 즉 또래 무리와 같은 친밀한 또래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 역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형 따돌림보다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가해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피해자의 동시대응성 또한 적어질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의 공간적 특성(나은영·김은미·박소라, 2013)은 온라인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가담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으로는 선생님들 보는 눈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고 가해자들 말고.”(C, 여, 15세, 경기도)

“오프라인은 애들 눈치도 보이고 대놓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욱먹을 수도 있고 온라인은 막말하기도 편하고. 글자로 치는 거니까…….”(N, 여, 15세, 경기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대놓고 하는 건데, 온라인은 눈에 안 보이고 다 허공에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C, 여, 15세, 경기도)

“오프라인에서는 누가 날 욱하고 따하는지(따돌리는지) 알기 때문에 누구 피하고 누구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지만, 온라인은 익명이 다 보니까 그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S, 남, 16세, 서울-강남)

“얼굴 대 얼굴로 맞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K, 남, 15세, 강북)

5. 논의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집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심층 인터뷰 결과, 집단 따돌림은 발생 상황과 구조에 따라 또래 무리 내에서 발생하는 ‘관계형 따돌림’과 어떠한 무리에도 속하지 않은 대상에게 행해지는 ‘외톨이형 따돌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유형에 따라 따돌림의 발생 이유와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청소년들은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학급이라는 구조 속에서 몇몇 또래끼리 소규모의 무리를 지어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가 형성되는 학급 초기에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못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배척되고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이 외톨이형 따돌림에 해당된다. 관계형 따돌림은 또래 무리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에서 일종의 응징과 비호감의 표현으로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따돌림은 발생원인 또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관계형 따돌림은 집단 내 갈등 및 남들에게 비취질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주요 요인으로 관찰되었다. 무리 내에서 친구 간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 친구를 벌하거나 자신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친구를 멀리하기 위함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 따돌림의 문제를 무조건 특수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따돌림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또래 부침의 과정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황만을 보고 모두 ‘집단 따돌림’이라 명명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정밀하게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

표 2. 심층 인터뷰의 주요 결과

따돌림 유형	관계형	외톨이형
따돌림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내 갈등 발생 • 남들에게 비취질 자신의 이미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특징(예: 못생김, 뚱뚱, 장애 등) • 행동이 다름(예: 조용함, 목소리가 안 들림,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 • 사회성 관련(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한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 눈치가 없음, 예민 등) • 환경의 제약(예: 한국의 진학 구조, 입시스트레스 등) • 관계 내 따돌림에서 관계 밖 따돌림 대상으로 전락
따돌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적 경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이용 • SNS를 통한 간접공격: 저격글 • SNS를 통한 간접적 비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M 통한 괴롭힘1: 온라인 언어폭력 • MIM 통한 괴롭힘2: 그룹채팅에서 괴롭히기 • SNS 통한 직접공격: 악성댓글, 필독 기능 등 • Ask.fm 이용 • 온라인 공간 개설: 괴롭힘을 위한 카페, 페이스북 그룹 만들기 등

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외자녀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세대의 청소년 시기 보다 발달 과정에서 또래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또래와의 관계의 어려움에 더욱 많이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따돌림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 이전에 대인관계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학습이 더욱 요구된다.

외톨이형 따돌림의 경우, 기존 연구(예: 박경숙 외, 1998; 최미경, 2013; Thornberg, 2010)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형 특징 및 다른 행동적 특징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다름'에 대한 수용폭이 좁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 또한 따돌림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온라인에서의 활발한 자기표출이 오히려 또래친구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취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제 생활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가 온라인에서 좀 더 활발한 모습으로 활동할 경우,

또래에게는 소위 ‘나대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이는 더욱 또래들에게 거부/배제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 “학교에서 별로 친구도 없고 혼자 다니는 친구인데 온라인에서는 웬지 할 말 다하고 가오를 잡는다고 할까?”(J, 남, 16세), “온라인에서는 얼굴이 안보이니 자신감이 더 생겨서 더 예쁜 척한다거나 애들이 욕하죠”(D, 여, 16세)). 즉,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의 온·오프라인에서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따돌림의 상황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또래 무리 밖의 구성원일 경우 그 거부감이 심해지며, 이 거부감의 표출이 따돌림으로 이어진다. 주목할 점은 오프라인에서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모두 소셜미디어 내에 연결이 되어 있고, 따라서 항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설령 친한 친구 무리가 아니더라도 호기심이나 재미의 차원에서 다른 이들의 페이지를 훑어보게 되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친구의 다른 모습, 특히 실제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의 온라인 내에서의 자기 표출을 접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반’ 문화, 동일학군 내 진학 구조, 입시스트레스와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들 또한 집단 따돌림을 유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관계 내 발생한 갈등이 증폭되어 외톨이형 따돌림으로 전이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어, 또래와의 대인관계 속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학습이 다시금 강조된다. 더불어 따돌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과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상황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따돌림 방법 역시 관계형 따돌림과 외톨이형 따돌림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두 유형의 따돌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은 온라인에서의 따돌림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온라인 미디어, 특히 MIM과 SNS 등을 이용한 따돌림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 언급해서, 이들 미디어를 이용한 따돌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계형 따돌림은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괴롭힘의 형태이므로 외톨이형 따돌림보다 온라인일지라도 좀 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내 자신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이용하거나 저장글을 사용하여 괴롭히는 형태가 이에 속한다. 반면, 외톨이형 따돌림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MIM를 통한 온라인 언어폭력, 그룹채팅에서 괴롭히기, SNS에서의 악성댓글, 필독기능 이용, 익명성이 보장된 Ask.fm 이용, 괴롭힘을 위한 온라인 공간 개설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특정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보이며,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직접적인 형태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이 ‘미디어’를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미디어의 지속적인 연결성이 그대로 따돌림의 지속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디어를 통한 따돌림에는 쉽게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록이라는 과정이 보여주는 미디어의 가시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와 가해의 권력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투명성의 위험이 존재한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오직 그 상황적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 타인, 예를 들어 교사나 부모들에게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의 필독기능이 그 기능 자체만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수단으로 또래 괴롭힘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따돌림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아울러, 항상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의 특성상 따돌림 피해자들은 정서적 환기(cooling off)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통적 형태의 면대면 따돌림 상황에서 가해가 이루어지는 학교 혹은 학원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가해를 할 수 없는 일정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서적 환기가 가능한 공백의 기간이 존재한다. 이는 특히 관계형 따돌림이 외톨이형 따돌림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하다. 정서적 환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갈등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은 바로 이러한 정서적 환기의 여지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면대면 따돌림의 경우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노출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각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노출되고, 그 결과 따돌림이 오프라인으로까지 다시 확장될 수 있다(예: “온라인으로 하면 바로 티가 나면서 그게 오프라인에서 더 확장된다(N, 여, 15세, 경기도).” 피해자는 그 따돌림 과정이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항시 노출되는 악순환 속에 있게 된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르는 사회에 있다는 세넷(Sennett, 2012)의 지적처럼,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디어를 매개로 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소통’에 대한 교육일 것이다. 박소라·나은영·김은미(Park, Na & Kim, 2014)는 끊임없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사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에는 단순히 콘텐츠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선 이해와 공감적 차원이 요구되며, 더불어 미디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윤리적·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해 또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일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면대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불링이 혼합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따돌림 현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디어’는 따돌림을 촉진시켜주는 촉매 혹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오프라인과 함께 청소년들이 또래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대인적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청소년기의 의사소통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송영혜, 2012),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또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

함에 따라 이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는 대면적 상황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과의 눈높이 소통을 위한 장으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유사한 일례로 군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거나 SNS를 통한 소통으로 그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완기, 2014. 08. 08일자).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 혹은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과의 더 나은 소통과 연결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집단 따돌림 문제에 있어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정서적 환기가 일어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불균형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따돌림이 심화될 수 있다. 미디어가 특정인을 배제시키기 위한 좀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래와의 소통’과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 또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을 본 인터뷰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즉,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가시적인 사례만을 예로 들다 보니 극단적인 사례에 집중이 되고, 이러한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따돌림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의 유형 및 개념에 대한 정밀성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이 집중하여 습득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연구 작업이 추후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능력 함양, 관계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감 능력, 다름의 인정과 같은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달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중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집단 따돌림의 상황적 요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따돌림이 발생하는 관계적 맥락에 따라 집단 따돌림의 유형화를 시도했으며, 향후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시도한 유형화는 여전히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명명한 따돌림 유형의 명칭에서부터 각 유형이 지니는 상황적 요인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예를 들어 각 유형별로 미디어의 이용이 어떠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뷰에서 주로 언급된 관계형 소셜미디어의 역할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집단 따돌림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유형에 따른 따돌림 현상의 차이를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같은 관계형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또래 따돌림 현상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따돌림의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 (1997). 청소년들의 집단 따돌림 원인과 지도방안. 박성수·오익수·김용태·박한샘·조은경.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당하는 아이들』(7~36쪽).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권준모 (1999).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권 2호, 59~72.
- 김신애 (2004). 집단 따돌림 연구경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5권 1호, 73~107.
- 김용태·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박성수·오익수·김용태·박한샘·조은경,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당하는 아이들』(55~84쪽).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원중 (2004). 왕따: 의미, 실태, 원인에 관한 종합적 고찰. 『상담학연구』, 5권 2호, 451~472.
- 김은영 (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등교공포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60권 3호, 151~176.
- 김은정 (2007). 청소년기의 또래관계 분석—그 사회구조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2007 후기사회학대회 한국 사회학대회(Ⅱ)』, 1061~1073.
- 김해숙 (2000). 『집단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들의 행동특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김은미·박소라 (2013).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공감능력: 면대면, 음성 및 문자매체 따돌림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606~635.
- 남상인·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권 3호, 23~43.
- 박경숙·손희권·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송영혜 (2012). 또래관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성식·전신현. (2000).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의 상황요인과 집단역학과정. 『刑事政策』, 12권 1호, 155~183.
- 이인태 (2012). 초등학생의 사이버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

- 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32권, 92~118.
- 이완기 (2014. 08. 08). 휴대폰 주면 끝?...군폭력 대책도 주먹구구. 『서울경제』, 14면.
- 이창호·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권 3호, 259~285.
- 이창호·성윤숙·정낙원·장상아·박선영·이재연.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조윤오 (2013).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韓國公安行政學會報』, 53, 303~328.
- 최미경 (2013). 중학생의 학교따돌림 피해경험과 건강상태, 스트레스 대처행동. 『보건교육건강증진회진학회지』, 30권 3호, 25~34.
-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Bastiaensens, S., Vandebosch, H., Poels, K., Van Cleemput, K., DeSmet, A., & De Bourdeaudhuij, I. (2014). Cyberbullying on social network sites. An experimental study into bystanders' behavioural intentions to help the victim or reinforce the bull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259~271.
- Berg, C., & Brehebey S. (2014). *A social problem, not a technological problem: Bullying, cyberbullying and public policy*. Institute of Public Affairs. https://ipa.org.au/portal/uploads/submission_V6.pdf
- Boyce, C., & Neale, P. (2006).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 guide for designing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for evaluation input* (pp. 3~12). Watertown, MA: Pathfinder International.
- Corvo, K., & DeLara, E. (2010).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of relational violence: Is bullying a risk factor for domestic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3), 181~190.
- Cotterell, J. (2007). *Social networks in youth and adolescence*, New York, NY: Routledge.

- Cohen, D. & Crabtree, B. (2006). Qualitative Research Guidelines Project. <http://www.qualres.org/HomeSemi-3629.html>.
- Davis, K., Randall, D. P., Ambrose, A., & Orand, M. (2015). 'I was bullied too': stories of bullying and coping in an online commun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4), 357~375.
- DiCicco-Bloom, B., & Crabtree, B. F. (2006).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Medical education*, 40(4), 314~321.
- Eliot, M., Cornell, D., Gregory, A., & Fan, X. (2010). Supportive school climate and student willingness to seek help for bullying and threats of viol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6), 533~553.
- Erdur-Baker, Özgür. (2010). Cyberbullying and its correlation to traditional bullying, gender and frequent and risky usage of internet-mediated communication tools. *New Media & Society*, 12(1), 109~125.
- Gradinger, P., Strohmeier, D., & Spiel, C. (2009).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Zeitschrift für Psychologie/Journal of Psychology*, 217(4), 205~213.
- Hay, C., Meldrum, R., & Mann, K. (2010). Traditional bullying, cyber bullying, and deviance: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30~147.
- Festl, R., Scharkow, M., & Quandt, T. (2014). The individual or the group: a multilevel analysis of cyberbullying in school class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 535~556.
- Koo, H. (2007). A time line of the evolution of school bullying in differing social contex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8(1), 107~116.
- Kreidler, W. J. (1996). Smart ways to handle kids who pick on others. *Instructor*, 106, 70~75.
- Barriball, K. L., & While, A. (1994). Collecting Data using a semi-structured interview: A discussion pap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2), 328~335.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lackwell, Oxford.
- Olweus, D. (2011). Bullying at school and later criminality: Findings from three Swedish community samples of males.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2), 151~156.
- Park, S., Na E., & K, E.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ctivities, netiquette and cyberbullying.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42,

74~81.

- Raskauskas, J., &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64.
- Salmivalli, C., Huttunen, A., & Lagerspetz, K. M. J. (1997). Peer networks and bullying in schoo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 305~312.
- Sennett, R. (2012).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 역(2013).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서울: 현암사.
- Sercombe, H., & Donnelly, B. (2013). Bullying and Agency: Definition, Intervention and Ethics. *Journal of Youth Studies*, 16(4), 491~502.
- Schuster, B. (1999). Outsiders at school: The prevalence of bullying and its relation with social statu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 175~190.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47~154.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Smith, P. K., & Brain, P. (2000). Bullying in schools: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6(1), 1~9.
- Thornberg, R. (2010). Schoolchildren's social representations on bullying caus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7(4), 311~327.
- Vandebosch, H., & Van, C. (2008). Defining cyberbullying: A qualitative research into the perceptions of youngster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4), 499~503.
- Wade, A., & Beran., T. (2011). Cyberbullying: The new era of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1), 44~61.
- Wang, J., Iannotti, R. J., Luk, J. W., & Nansel, T. R. (2010). Co-occurrence of victimization from five subtypes of bullying: Physical, verbal, social exclusion, spreading rumors, and cyber.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5(10), 1103~1112.
- Williams, K. R., & Guerra, N. G. (2007).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internet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S14~S21.
- Wolak, J., Mitchell, K. J., & Finkelhor, D. (2007).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 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 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S51~S58.

최초투고일 06월 30일

논문수정일 01월 20일

게재확정일 02월 05일

부록. 인터뷰 참가자

ID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스마트폰 보유
A	여	15	경기도	3시간10분	보유
B	여	15	경기도	50분	보유
C	여	15	경기도	3시간10분	보유
D	여	16	경기도	3시간	보유
E	여	15	경기도	1~2시간	보유
F	여	14	경기도	1시간	보유
G	남	16	서울-강북	3시간	보유
H	남	16	서울-강북	5시간	보유
I	남	16	서울-강북	4시간	보유
J	남	16	서울-강남	4시간	태블릿 보유
K	여	15	서울-강남	3시간	보유
L	여	14	서울-강남	4시간	보유
M	남	15	서울-강북	2시간	보유
N	여	15	경기도	1시간 30분	보유